

담양군,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제적 대응 체계 본격 가동

특별법 기반 재정·권한 확보 및 8대 핵심 건의사항 반영 등 전략적 대응

담양군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비해 군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최근 중앙정부와 광주·전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군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행정통합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담양군 행정통합 대응 전담 조직은 이정국 부군수가 단장을 맡아 ▲총괄기획반 ▲행정운영반 ▲홍보지원반 등 실무 중심의 3개 반으로 구성되며, 통합자문단을 별도 운영하여 분야별 특례사업 발굴과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전담 조직은 매주 전략회의를 개최해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분권 등의 내용을 군의 실정에 맞게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행정통합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만큼이나 '군민의 실질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해 지난 21일 전략회의를 통해 도출한 '8대 핵심 건의사항'을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①경마사업 수행 기관 유지 및 인프라 구축 ②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완화 ③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육형 쉼터 설치 특례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근거 마련 ④지역 환경유해시설 이전 및 주소복합단지 조성 ⑤달빛철도 노선 활용 광역



순환철도망 건설 ⑥대전면 전차포 사격장 및 장평면 예비군훈련장 등 군사시설 이전 ⑦국립정원문화원 2단계 확장 ⑧국립남부권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어 군은 28일 오전 10시 담양문화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를 개최해 도지사, 군수, 군민이 함께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절차를 공유하고, 군민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2월부터는 '담양군 행정통합 대응 전략 수립 용역'에도 착수한다. 통합 특별법안이 담양군에 미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군민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 전략과 맞춤형 특례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고흥군, 고흥사랑기부제 2026년 모금액 '50억 원' 도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프로젝트, 23개 시책 적극 추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사랑기부제를 단순한 재원 확보를 넘어 인구·산업·지역공동체를 있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육성하고, 2026년 모금액 50억 원 달성과 2030년 인구 10만 명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금이 지역 발전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고흥군은 ▲맞춤형 홍보 강화 ▲법국민 기부 참여 확대 ▲차별화된 답례품 운영 ▲기금사업의 전략적 운용 ▲기부자 예우체계 고도화 등 5대 추진 분야, 23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고흥사랑기부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부자 특성에 맞춘 온오프라인 홍보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연말 정산 시기에는 집중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민간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콘텐츠 확산으로 제도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부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고흥 출신 출향인 등 기부 가능자를 체계적

으로 발굴하는 한편, 고흥군 향우 2세 등을 중심으로 한 소액 기부자 참여도 확대한다. 특히 10만 원 기부자를 대상으로 20만 원 기부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해 안정적인 모금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향우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부 참여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고흥만의 특색을 살린 지정기부사업을 지속 발굴해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답례품 분야에서는 고흥 특산품과 제철 식품을 중심으로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부자 선호 금액대를 반영한 고흥형 특화 답례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답례품 품질 관리반 운영과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이벤트와 연계한 체험형 혜택 제공으로 재기부 참여를 유도한다.

기부금은 인구 10만 달성 비전과 연계한 주거·의료·생활 기반 확충 사업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정기부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된다. 또 한 주민 주도형 기금사업을 지속 발굴해 기부금 사용의 가시성과 공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진도군(군수 김희수)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문화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공공임대주택' 1호의 입주가 시작되고, '청년 활동 포인트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청년공공임대주택 1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진도읍 교동리 일원에 총

진도군, 청년 정착과 자립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 본격 추진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활동포인트제, 청년 창업 등 체감형 정책 확대

18세대 규모로 건립 중이며,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진도군은 상반기 중에 입주 자격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하반기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공공임대주택 2호의 건립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사전 투자심사와 시설제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활동 포인트제'는 청년들의 군정 참여와 지역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군정 홍보, 지역 명소 소개, 청년 대상 워크숍과 교육, 지역 내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면 활동별로 점수(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일정 점수(포인트) 이상을 적립하면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정주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오재명 기자

보성군은 군민 모두의 설날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2026년 민생600 보성사랑(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오는 2월 2일부터 본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성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민생 안정 대책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함으

보성군, 전 군민 1인당 30만 원 보성사랑 지원금 지급

'모두의 설날' 2년 연속 '민생600', 2월 2일부터 본격 추진

로써, '민생 600' 정책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군민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 재원을 2019년부터 전략적으로 적립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액 충당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

모의 자금이 지역 내에 유입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5년 12월 16일)과 신청일 모두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으로, 외국인 가세대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집중 신청·지급 기간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5년 12월 16일)과 신청일 모두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으로, 외국인 가세대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집중 신청·지급 기간으로 운영된다. 보성/김윤기 기자

등을 돕고 있다. 검정고시 대비반 이외에도 급·간식, 무료 건강검진, 상담, 자격증 취득, 자기계발, 문화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관련 안내는 061-470-6792에서 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영암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월부터 운영하는 검정고시 대비반 참여 청소년을 상시 모집한다.

이 대비반은 지난해 연말 실시한 센터의 수요조사에서 학교밖청소년이 꼽은 1순위 건의 사항을 반영한 학력 취득 지원 사업.

센터는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과 함께

영암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대비반 모집

2월부터 운영, 상시 모집... 모의고사·교재·인강 등 지원도 병행

모의고사, 교재, 인터넷 강의, 학습공간 등 지원도 병행해 오고 있다.

이런 지원이 성과를 거둬 지난해에는 18명의 학교밖청소년이 검정고시에 응

시해 모두 합격했다. 영암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24세 학교밖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들의 진로 설계, 건강한 자립 성장

영암/김희선 기자

광양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MICE 당일형 지원 신설·국제행사 연계 인센티브 도입 등 다각화

광양시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광양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식당,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경우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수학여행단과 MICE 행사 참가자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MICE 유치 인센티브 확대와 국제행사 연계 추가 지원 신설 등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가 한층 강화됐다.

기존 숙박형 중심이던 MICE 지원에 더

해 회의·기업 연수·포럼 등 당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MICE 행사에 대해서도 1인당 5천 원의 인센티브가 새롭게 지원된다.

또한 2026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기간에는 박람회 관람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3천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단체관광 기준으로 당일 관광 시 1인당 8천 원, 1박 1만 6천 원, 2박 2만 4천 원이며, 수학여행은 1박 기준 1인당 1만 원이 지원된다.

MICE 행사는 당일 5천 원, 1박 1만 2천 원, 2박 2만 4천 원이 지급된다. 관내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에는 1인당 5천 원이 추가 지원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에는 1인당 3천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